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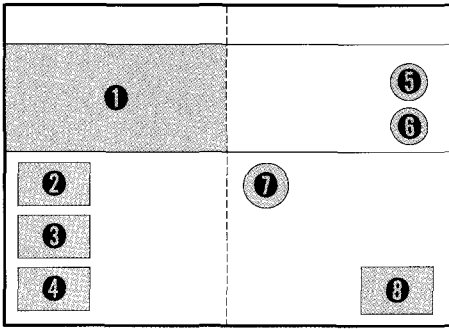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 부산대학교 ESCO사업이 최근 완료되어 ESCO사업에 국 시급식으로 남게 됐다. 이번 ESCO 사업은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금액 약 400억원대의 국내 최대 단일지 ESCO사업, '국내 최초의 ESCO 3사 컨소시엄 결성 등의 화제를 뿌리며 성공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왔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이래 학교의 특성상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 마침내 지난 5월 6일 준공식을 가졌다.

부산대학교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는 기존 노후 냉난방설비를 흡수식냉온수기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자계산소 등 38개동에 산재해 있던 열원시설을 그룹별로 분산배치하여 건물자동화를 이용한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개선전 562대에 달하던 패키지에어컨은 흡수식냉온기 18대로, 11개의 보일러와 난로 288개는 1t/h 2대로 교체되었고 건물자동제어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40W×2등용 조명 10,997개는 고효율 32W×2등용으로, 40W×1등용 2,391개는 32W×1등용으로 각각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얻게되는 에너지절감액은 연간 무려 27억5천3백만원. 총투자사업비 399억원중 ESCO자금은 145억원이 지원돼 투자비회수기간은 6년여 정도에 그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측은 연평균 시설보수비가 40억원에 달했으나 ESCO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대대적인 캠퍼스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운 총장과 컨소시엄 3사대표 및 시공사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에서는 이 학교 유용상 시설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



- ① 준공식이 끝난 후 기념만찬에 앞서 축하케익절단식이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감사사 진명엔지니어링 서정학 사장, 한화건설 김현중 대표, 부산대 박재윤 총장, 벽산건설 정종득 대표, 세코 장강돌 대표).
- ② 부산대 ESCO사업은 국내 ESCO업계 최초로 벽산건설, 한화건설, 세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한 400억원대 대규모 공사였다.
- ③ 어려운 인력 및 장비관리를 통하여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완수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김홍준 현장소장(왼쪽)과 박종근 차장(오른쪽).
- ④ 벽산건설(주) 정종득 대표이사, (주)한화건설 김현중 대표이사, (주)세코 장강돌 대표이사, 대신산업설비(주) 김재업 대표이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왼쪽부터).

- ⑤ 유웅상 부산대 시설과장은 ESCO사업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부산대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 ⑥ 박재윤 부산대 총장은 통상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ESCO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부임 시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고 ESCO사업을 통한 개선을 지시했다고 한다.
- ⑦ 세코의 장강돌 대표이사는 "부산대 ESCO사업은 효과, 파이낸싱, 학교의 ESCO사업 뜻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 ⑧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학교 관계자, ESCO 3사대표 및 시공/협력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축하했다.



여가 있었다. 벽산건설(주)의 김홍준 현장소장과 박종근 차장이 성공적인 현장관리에 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했고, 벽산건설(주) 정종득 대표이사, (주)한화건설 김현중 대표이사, (주)세코 장강돌 대표이사, 대신산업설비(주) 김재업 대표이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박재윤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ESCO사업을 통해 효원캠퍼스의 교육·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ESCO의 자금과 기술로 노후시설 및 설비를 한꺼번에 개선하고 그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한 ESCO사업이 부산대학교를 모델로 다른 학교에 까지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ESCO 사업에 관심이 남달랐던 박재윤 총장은 99년 부산대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연통난로를 사용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고 ESCO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코의 장강돌 사장은 "대규모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파이낸싱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부산대 ESCO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

공기관의 ESCO사업에 자심감과 노하우를 확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기뻐했다.

또한 자리를 같이한 에너지관리공단인 신기석 팀장은 "낡고 노후화된 시설을 갖고 있는 국립대들이 많은 상황에서 잡음 없이 좋은 결론을 낸 부산대의 사례는 파급효과가 커 ESCO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대의 ESCO사업은 ESCO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벽산건설, 한화건설, 세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ESCO, 학교 관계자, ESCO관련 정부기관이라는 각 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일궈낸 ESCO사업의 좋은 본보기로 남을 예정이다.

